

여성 패션에 표현된 밀리터리룩에 관한 고찰

간 문 자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Military Look Expressed in Women's Fashion Design

Moon-Ja Kan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1996. 9. 2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ilitary look,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fashion trends in the 1996 women's fashion.

Military look is that imitates or reinterprets the Army uniform which is functionally useful.

After World War I, military look appeared in the women's fashion which is functionable tailor suits style, ankle-length skirt, pants or boiler suits for work wear, overcoat against the cold, and there was an attempt to introduce a National Standard Dress.

In the middle of World War II, there was a similar circumstance in women's military fashion. There were functionable tailor suits, knee-length skirt, pants or siren suits for work wear. And the Utility Dress was nationally recommended. In addition, th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control the materials and styles used for some clothes.

In the 70s, as the resistance movement as counterculture began to wear Army look which was army-uniform or army caps with 'US ARMY' logo and badges, and became very popular among the youth.

In the 90s, military look has got one of the fashionable fashion themes with revival of Neo-Hippie look. Not only street fashion but also high fashion designer selected the trend for '96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look are khaki colors or camouflage prints, epaulets, big outpockets with flap, golden buttons and army belt.

As I examined, during the World War I and II, women wore the military look because of shortage of goods and work or service, and it was recommended by government. Though the military look in 70s, began by the resistance movement, at least it became a popular fashion. Military look in 90s, does not have inner symbolic meaning or ideology but it only represents a fashion trend and revival fashion.

I. 서 론

밀리터리룩이란 기능성과 활동성이 강조된 군복의 디자인을 패션에 이용한 것으로 정세의 변화와 함께 패션 테마로서 자주 등장한다. 군복패션이 유행의 첨단에 설 수 있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군복이 기능적인 디자인의 정수를 가장 잘 집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복의 조건은 인간이 바라는 옷의 가장 기능적인 모습으로, 최첨단 섬유기술과 제작기법을 사용하여 인체공학적으로도 완벽한 디자인의 습목적성이 그대로 표현되는 모델이다.

군복 디자인도 처음에는 과시용 원색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일으키도록 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숨어서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 되어 위장용 색인 국방색 즉 카키색과 어두운 초록으로 바뀌게 되었다. 단색 군복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풀 속에 섞여 보이는 위장무늬에 선두를 내어주게 되었다. 90년대 걸프전에서는 사막이라는 지형적 조건에 맞추어 위장복 무늬를 모래색에 가깝도록 엷게 바꾸는 등 오늘날의 군복은 전세계의 지형과 숲의 색깔, 계절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편타당한 최대 공약치를 뽑아내어 사용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¹⁾. 따라서 군복의 특징은 안전성, 기능성, 견고성 및 인간 동작의 적합성에 이르기까지 가장 완벽을 추구한다 하겠다.

이러한 군복으로부터 일반에게 유행된 대표적 디자인은 레인 코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트렌치 코트, 야전잠바(field jacket), 사파리 룩, 등산복, 작업복, 세일러 룩 등이며, 군인 개인장비의 특성인 모든 장비를 몸에 붙이고 두 손이 자유로운 군인 자세를 모방하여 배낭, 워크맨, 핸드폰 등의 유행이 창출되었다. 이 외에도 군복의 아이템을 이용하던가, 군복의 이미지 및 디테일을 사용한 디자인의 밀리터리룩이 패션의 흐름에 따라 유행의 주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1차 대전 이후 여성 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룩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패션에서의 밀리터리룩은 1차 대전 기간, 2차 대전 기간, 1970년대 초반 그리고 1996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시기들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II. 여성 패션에서의 밀리터리 룩

1. 1차 대전 기간

1차 세계대전은 여성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400년 동안이나 사용되었던 콜셋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²⁾. 여성복은 이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전시에 적합하도록 바쁜 여성들을 위해 스커어트는 박스 플리츠, 혹은 무릎 대어 넓게 하였고, 히프는 단순하게 하여 긴 재킷으로 가렸다. 테일러드 수트는 군복의 영향으로 단순하고 평범한 라인과 색으로 바뀌면서 딱딱한 디자인으로 되었으며³⁾, 주된 색상은 브라운, 베이지, 블랙계열, 블루, 그리고 희망의 색인 초록색이 컬렉션을 지배하였다. 고급 울은 군복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하이 패션 여성들은 부족한 모직물 대신 실크와 새틴을 낮에는 물론 겨울에도 착용하였다⁴⁾.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은 테일러드 수트와 주름치마 디자인의 밀리터리룩을 착용하였다. 이는 허리에 벨트를 매는 약간 긴 재킷과 바닥에서 14~15cm 올라간 길이의 스커어트로 주로 카키색 개버딘으로 만들었다. 전쟁의 영향으로 스커어트의 길이가 짧아졌으며, 이는 물자절약과 활동성의 이유이었다. 이렇게 짧아진 치마길이는 전쟁 후에 스커어트 길이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켰다[그림 1].

전쟁이 계속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군복무에 가담하게 되었고, 간호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군용차나 앰버런스를 운전하거나, 혹은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기능적인 오버롤 작업복[그림 2]을 일상복으로까지 입게 되었고^{5,6)},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일을 하게 됨에 따라 의복을 통해 계층구별을 하던 오랜 관습에 다소 혼란이 오게 되었다. 또한 많은 전사자에 대한 소식은 여성들이 패션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비애국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⁷⁾ 자제되기도 했다. 군복무에 들어간 여성은 남자군복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본딴 제복을 입었고[그림 3], 운전을 하는 여성들은 주머니가 많이 달린 남자옷 같은 재킷을 입었다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부들의 복장은 주름잡힌 흰 블라우스, 삼각 턱받이가 달린 앞치마, 적십자 표시가 달린 밴드로 묶는 머리수건과 외출시에 입는 케이프이었다⁹⁾.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기본 차림은 루



[그림 1] 1차대전 기간의 밀리터리룩, *Crosscurrents*, p. 50.



[그림 2] 1차대전 중의 작업복,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 82.

즈피트한 긴재킷의 허리를 벨트로 매고 발목길이의 바지를 입든가 혹은 오버롤을 입고, 낮은 굽의 끈매는 작업용 구두, 검정 스타킹을 신고, 머리는 공장의 규칙에



[그림 3] 1차대전 중의 여성 군복,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 82.

따라 모자 속에 넣어 단정하게 하였다¹⁰⁾. 이처럼 대부분의 작업복은 매우 자유롭고 편안하게 디자인되어 집에서 만들 수 있었고, 작업복은 패션이라기 보다는 단지 군복과 같이 시대적인 필요로 간주되었으나 보그에서는 한두 페이지에 걸쳐 다루었고, 짧은 스커트와 바지도 점차 패션의 한부분이 되었다.

라펠, 어깨 견장, 버클 달린 벨트가 있는 영국 방한복은 점차 남성과 여성의 기본 오버코트가 되었는데 이는 트랜치코트에서 부터 나온 것으로 매우 유용한 상품이 되었다¹¹⁾.

프랑스 군인이 착용하였던 베레모는 1차 대전을 통하여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인기있는 스포츠 모자가 되었다¹²⁾.

1918년이 되면서 전쟁이 대량물량전으로 바뀜에 따라 직물의 부족은 심각하여서 디자이너들은 하나의 의상에 4 1/2야드 이상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단순함은 이 시기의 이상적 기준이었고 물자 절약의 방법이 패션 편집자들에게 의해 제시되었으며, 검정, 갈색, 푸른색 같은 어둡고 실용적인 색이 권장되었다¹³⁾. 실용적인 '국민 기본 의상'이 외출복, 가정복, 휴식복, 티타임 가운, 디너 가운, 이브닝 가운, 나이트 가운 대신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¹⁴⁾. 디자이너들은 군복의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워드(C.Worth)의 봄 컬렉션에서는 군복

의 영향을 받은 코트 시리즈를 발표하였다¹⁵⁾.

전쟁으로 인한 여성복의 가장 큰 변화는 스커어트의 길이가 전 시대에 비해 짧아졌고, 테일러드 수트를 여성이 착용한 것이나 작업을 위해 바지를 착용한 것 등이다. 외출할 때의 코트는 군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그림 4], 헤어 스타일은 전쟁 기간 중엔 짧은 머리를 얼굴 가까이 붙였다. 모자는 약간 높고 작은 스타일로 브림은 없거나 적은 브림의 모자를 주로 사용했고, 베레모도 전쟁의 영향으로 착용되었다. 스타킹은 낮에는 진한 색, 밤에는 옅은 색을 신었으며, 실크 대용으로 레이온 스타킹이 소개되었다. 구두는 전 시대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스커어트 길이가 짧아지면 서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림 4] 1차대전 기간의 코트, *Fashion Source Book*, p. 40.

1차 대전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었으며, 가정 밖에서 일을 찾거나, 남녀 평등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의 성공을 얻어내기도 했다는 점일 것이다. 여성들은 전쟁기간 동안 그들의 가치를 증명했고, 여성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바랄 수 있었으나 전쟁 후 남성들이 일터로 돌아왔을 때에는 고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1차 대전은 패션을 비롯한 수

많은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 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2. 2차 대전 기간

2차 대전은 1차 대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국민국가의 총동원 체제를 강요함에 따라 전시 체제에 의한 패션이 등장하게 된다. 이제 여성은 전시 동원 체제에 맞추어 여성다운 장식이나 가는 허리와 큰 엉덩이를 강조하는 대신, 험령하게 맞는 수트의 실용적 의상을 착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복식은 남성적 분위기가 가장 많이 표현된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장식적인 디테일은 없어지고 남성복이나 여성복의 어깨가 각지고 넓게 바뀌었다. 여성들은 남성적인 느낌의 테일러드 수트를 채택하였고 바지가 널리 입혀졌다. 펜츠와 점프수트는 여성 작업복으로 선호되었다¹⁶⁾. 각지고 넓은 어깨는 거의 모든 의상에 사용되어서 수트나 코트 뿐 아니라 네글리제, 블라우스, 카테일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까지도 어깨패드들 사용하였다¹⁷⁾.

점차 전쟁이 심해짐에 따라 전시에 맞는 옷차림을 하게 되었고, 미혼 여성은 징집되기도 했으며, 기혼여성들은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군대에서의 여성 유니폼은 군모, 셔츠와 타이, 스커어트와 튜닉 재킷, 두꺼운 스타킹, 납작한 구두가 기본 형태이었고, 유니폼은 카키색, 공군의 블루, 해군의 네이비 블루이었다.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평범하고 기능적인 복장인 박스재킷이나 코트에 바지나 스커어트, 부츠, 머리스카이프 등의 기본 복장을 하였다.

전시 동안 영국에서는 직물 생산의 감소에 따라 가능한 실용적 의복을 매년 50스타일씩 개발하도록 제한하였고, 미국 정부는 옷감을 절약하기 위해 남성의 수트는 커프스, 주름, 패치포켓이 없이 생산하게 하였고, 여성의 드레스는 짧게하여, 2인치의 단을 넣고, 러플은 금지시켰으며¹⁸⁾, 과장되고 장식적인 요소인 적어넘긴 커프스, 패치포켓, 벌룬 슬리브, 덧댄 새쉬, 후두, 쇼울 등을 금지시켰다. 스커어트의 길이, 넓이도 제한했고, 단과 벨트의 넓이도 제한했다¹⁹⁾.

거의 모든 소비재가 배급제여서 각종 피복류도 쿠폰에 의해 배급되었다. 실크가 낙하산의 재료로 사용됨에 따라 스타킹 품귀는 양말의 착용을 이끌었고, 또한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리에 메이컵을 하

거나 커피를 칠하고 눈썹 연필로 솔기선을 그리기도 했다. 영국에서 여성들은 바지를 입기 시작했는데 이는 양말과 함께 입을 수 있음으로 모자라는 스타킹을 저축할 수 있고 바지의 편안함에 만족해야 했다²⁰⁾. 그 당시에 생산된 의복은 옷감의 량²¹⁾, 포켓의 수, 단추의 수까지 제한된 실용화 정책으로 인해 '실용적 의상'이라 불렀고²²⁾, CC41 (civilian clothing 1941)은 영국에서 실용의상에 붙이는 라벨이었다. 최소의 옷감을 사용해야 하는 압력 때문에 불필요한 장식적 디테일은 없애고, 스커트 길이는 무릎 바로 밑으로 짧게 하고, 칼라, 벨트, 라펠은 아예 없애거나 있어도 자그마한 크기로 줄어 들었다²³⁾.

미국에서도 1942년 도입된 L-85 규제²⁴⁾에 의해 웨딩 드레스와 같은 특수 의복을 제외하고는 전쟁에 필요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었고, 남성복은 쓰리피스가 아닌 투피스의 싱글 브레스트 수트로 주름과 커피스가 없어 야만 했다. 여성복 또한 규제가 있어서 모직물이나 기타 군수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스커트 햄라인을 72인치 이하, 재킷의 길이를 25인치까지로 규제하는 등 디자인 상의 디테일까지 상세하게 규제하였다²⁵⁾. '좀더 적게, 좀더 단순하게, 좀더 낮게'²⁶⁾라는 외침은 이 시대의 패션을 위한 슬로건이었다. 디너 드레스도 중국풍의 슬리브리스로 짧고 단순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습에 대비해서 울인원 보일러 수트 바지를 입었는데 이 때문에 이 바지는 사이렌 수트라라고도 했으며²⁷⁾, 보일러 수트는 바지와 함께 작업복의 기본 품목이었다. 코트는 군복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어깨 패드를 넣은 커다란 칼라와 라펠이 달린 박스형 코트 혹은 군용의 트랜치 코트가 자주 등장하였다²⁸⁾.

아이젠하워 재킷이라 불리는 장교용 점퍼도 인기 있었는데 이는 허리길이의 벨트를 달고 턱다운 칼라의 재킷이었다. 영국 공군용 윈드 브레이커 재킷 'wind cheater'도 또한 인기있는 밀리터리룩이었다²⁹⁾.

베레모는 전시 기간의 인기있는 모자였고, 다른 모자는 너무 비싸서 일반 여성들은 스카야프와 터번을 주로 착용하였다. 특히 터번은 프랑스 여성들의 독립적 정신 세계를 상징하는 다짐이 되었다³⁰⁾. 겨울에는 니트로 된 소련식 모자와 장갑을 착용했고 가스마스크와 마스크홀더는 새로운 악세서리였다.

구두는 늘 공급이 부족했으며 창과 굽이 두꺼운 덩어

리 모양의 'clumpy' 스타일의³¹⁾ 젓지슈즈로서 통굽이므로 가죽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는 아무 때나 성큼성큼 걸을 수 있는 견고하고 낮은 굽의 앞부리가 네모난 것이다. 핸드백은 뚜껑달린 커다란 숄더백이 인기 있었는데, 이는 가스 마스크, 배급품, 신분 증명서, 구급약품 등을 넣고 다니기에 적당했다.

겨울용 코트는 후두와 털안감이 달렸으며 추운 길거리와 난방되지 않은 건물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털이 들어간 부츠를 신었다. 커다란 주머니는 코트와 재킷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부족한 생필품을 넣기에 충분하였다³²⁾.

전쟁 기간 동안의 여성복식의 특징을 요약하면, 스커트 길이는 그 전까지의 시대와 비교하면 가장 짧아져서 무릎 바로 아래이고 좁은 주름을 넣기도 했으며, 어깨는 각지고 넓게 하기 위해 어깨 패드를 넣었고, 바디스는 다아트르 몸에 피트시켰다[그림 5]. 트랜치 코트와 장교용 재킷, 울인원 보일러 수트, 베레모, 통굽의 구두, 커다란 숄더백 등이 물자 부족의 전시에 적합한 복식이었다.



[그림 5] 2차 대전 기간의 실용 의상, *Fashion Source Book*, p. 87.

2차 대전을 통해 물자 부족의 어려움으로 시작된 실용적 의상의 생산은 단순함을 기본으로 하는 기성복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³³⁾.

2. 1970년대의 패션

1970년대 초 젊은이의 복식 중에서 밀리터리룩은 베트남으로 인해 反戰운동이 확산되면서 군대 의복이 젊은이들에게 패드로 나타났다. 전쟁을 반대하던 히피들이 잔인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³⁴⁾ 무질서하게 커다란 군용 코트나 위장재킷 등의 군복[그림 6]을 차려입고 저항운동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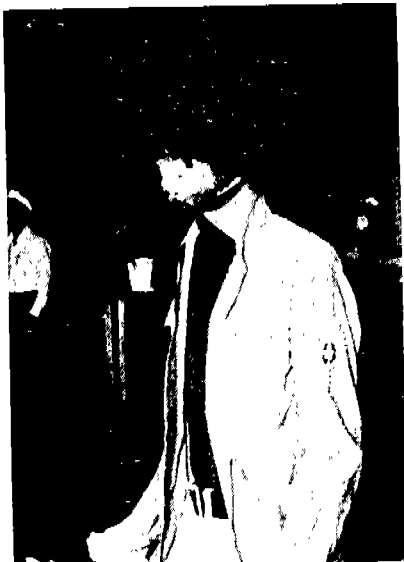
였고³⁵⁾, 군복 스타일의 의상은 젊은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히피들이 입었던 군복은 고전 군복에서 현대 군복까지 다양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나, 곧 많은 젊은이들이 모방하여 입기 시작했다. 특히 카키색의 의상과 해군 복지로 만든 셔츠, US ARMY 로고가 새겨진 셔츠나 모자[그림 7], Che Guevara가 입었던 군복 스타일이나 베레모가 인기있었다[그림 8]. 보통의 대학생들은 커다란 코트, 위장재킷, 군복 바지나 셔츠를 값싸게 사서 착용하기도 했으며, 검정색으로 염색하여 입기도 했다.

70년대 사람들은 전쟁은 반대하였으나 유행하는 머리 모양과 악세사리와 함께 밀리터리룩의 옷을 착용하고 싶어했다. 젊은 남성이나 여성들은 카키색이나 위장무늬 미군 모자를 그들의 긴 머리 위에 썼다. 진짜 혹은 가짜 뱃지가 달린 군용 셔츠나 소매 위에 줄이 있는 셔츠를 목걸이나 멋진 스카아프와 함께 착용했다. 꼭 끼는 카키색 진바지나 짧은 바지 또는 진짜 전투용 바지는 운동화나 유행하는 가죽 부츠와 함께 착용되었다³⁶⁾. 그 당시에는 진과 데님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군복지와 해군복지도 같은 흐름을 타게 되었고, 루디 건리히는 군복 디자인을 하이 패션에 발표하였다[그림 9]. 또한 군복의 디자인에서 유래된 사파리 룩이 유니섹스 웨어로 착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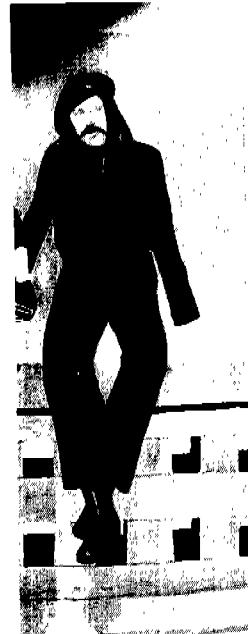
70년대의 밀리터리룩은 군복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양면적인 아이러니, 그렇기 때문에 군복이 주는 느낌인 힘,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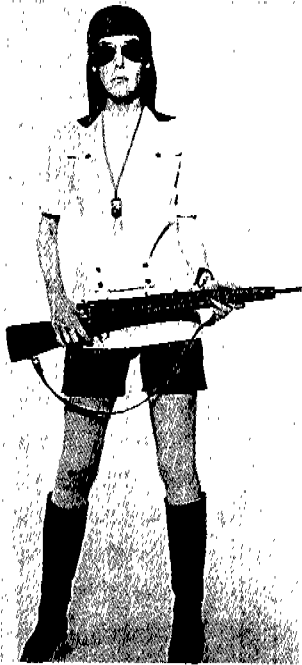
[그림 7] 70년대 유행 모자,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p. 202.



[그림 6] 히피들의 군복, *Mirror: A Social History of Fashion*, p. 30.



[그림 8] 저항 운동가의 복장,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 30.



[그림 9] Rudi Gernrich의 밀리터리룩, *The Rudi Gernrich Book*, p. 189.



[그림 10] Moschino의 밀리터리룩, *Fashion News*, V. 19, '93-94 F/W, p. 91.

적, 뉴올 등과는 거리가 먼, 풍자적으로 보이는 히피들의 저항 패션과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80년대에는 핑크의 스트리트 패션으로서 부분적 사용과 록 가수들의 고전 군복 스타일과 현대 군복 스타일의 복장으로 일부 사용되었을 뿐, 패션으로 유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카키색이 유행색으로 등장할 때마다 기성세대들은 카키색이 유행할 때는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는 불안감을 갖기도 했다.

4. 1990년대 패션

90년대 들어 밀리터리룩은 다시 활발한 패션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96년 들어 패션계는 밀리터리룩을 주요 패션 트렌드로 등장시켰다. 이는 '92년 부터 시작된 베오히피룩의 영향으로 시작된 스트리트 패션이 하이패션의 주제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한다. 베오 히피룩에서 모스키노는 60년대 히피룩의 복고로 '전쟁 대신 사랑과 평화'의 구호가 적힌 군복모우드를 선보였으며 [그림 10], 거리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젊은층에 의해 착용되었다[그림 11].



[그림 11] 90년대 스트리트 패션으로서의 밀리터리룩, *WWD Korea*, 1994, 2.

그 이후 걸프전, 유고 내전과 같은 국지전이 일어나면서 군인의 위장복을 이용한 디자인이 '93~94년에 걸쳐 발렌티노 등에 의해 발표되었고[그림 12], 젊은층을 중심으로 위장복 패션과 군용 워커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95~96년에 걸쳐서는 소위 건빵바지라고도

붙리는, 뚜껑있는 커다란 박스 플리츠 포켓이 옆으로 달린 군용바지를 워커속으로 넣어 입는 것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96년 1월의 빠리 오뜨꾸뜨르 컬렉션을 시작으로 '96



[그림 12] Valentino의 밀리터리룩, *Mode et Mode*, N. 288, Aut. '94, p. 100.



[그림 13] Chanel(Karl Lagerfeld)의 밀리터리룩, *Fashion News*, V. 35, '96, 6, p. 4

가을 겨울을 위한 컬렉션에서 두드러진 패션 트렌드의 하나는 밀리터리룩이다. 샤넬[그림 13]을 비롯하여 구찌, 아르마니, 막스마라 등 세계적 브랜드 외에 국내 디자이너들도 예외없이 밀리터리룩을 주요 테마로 등장시켰으며, 보그³⁷⁾를 비롯한 각종 패션지에서 이번 시즌의 패션 테마의 하나로 밀리터리룩을 꼽았다. 국내의 패션지^{38,39)}와 일간지^{40,41)}에서도 앞다투어 밀리터리룩을 다루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중순 밀리터리룩 패션쇼를 개최해 성황을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샤넬을 위한 칼 라거펠드, 이태리의 미우치아 프라다, 구찌를 위한 탐포드, 그리고 지아니 베르사체, 캘빈 클라인 등이 참여하였고, 군복에 현대감각을 조화시킨 무대였다⁴²⁾.

보그에 의하면, 이번 시즌의 가장 두드러진 밀리터리룩은 라거펠드의 샤넬 컬렉션으로, 샤넬 특유의 화려함을 잃지 않기 위해 액세서리인 금색 단추와 커다란 벨트로 장식한 것이다. 샤넬과 정반대의 이미지로 밀리터리를 표현한 요지 야마모토는 샤넬의 화려한 군인과 대비해, 퇴각하는 군인을 연상시키는 패잔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밖의 토드 올드햄은 컬러풀한 술을 둘러 훈장을 단 군인과 같고, 이스탄테의 베르사체, 마틴 깃봉, 캘빈 클라인, 막스마라의 밀리터리는 아주 단정하고 반듯하여 막 입대해 신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국내의 디자이너들은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이용한 것이 특징이라 했다⁴³⁾.

밀리터리룩의 몇가지 기본 특징은 카키색, 어깨결장, 가슴과 허리 아래의 대칭되는 4개의 뚜껑 달린 커다란 아웃 포켓, 금장식단추, 군대식 벨트 등으로 딱딱한 이미지이지만, 넓은 어깨는 아니어서 가늘고 긴 느낌의 모던한 스타일로 부활하였다. 여기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로 위장복 무늬, 니트, 레이스나 망사 등을 매치시키기도 하고, 카키색외에 브라운, 카멜, 네이비 블루 등을 사용하여 더욱 다양한 밀리터리 룩을 보여준다. 아이템으로는 작은 칼라의 V존이 올라가고 벨트를 매는 수트, 바지 외에도 약간 길어진 스커터트 혹은 맥시 스커터트, 짧은 바지, 7부 바지, 장교복스타일의 트렌치 코트나 금색 단추달린 롱 코트 등이다. 대부분이 좁고 꼭끼는 상체에 벨트를 매는 스타일이다.

'96년 가을 겨울의 패션 트렌드로 다시 등장한것은 밀리터리룩이 주는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과 가을 겨울 의상의 장중한 느낌과도 잘 맞는다 할 수 있다.

III. 밀리터리룩이 패션에 미친 영향

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과거의 장식적이고 과시적인 여성복의 형태에 기능성이 부여되고 활동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이는 군복의 기능성이 여성복에 미친 영향으로 현대 복식의 시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스러운 드레스 스타일을 입던 여성들이 군복의 영향을 받은 기능적인 테일러드 형태의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하게 되면서, 20세기 여성복의 정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데, 테일러드 수트와 드레스 스타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과 관련된 공식 석상에서는 테일러드 수트 형태의 의상을 입고, 사적인 성격의 행사에서는 드레스 형태의 의상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여성복의 대표적 포멀 웨어는 두가지 스타일로 정착 되었다.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이 남성복 스타일을 도입하면서 착용한 것으로, 전쟁중에 전장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일터로 나갔던 여성들이 군복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테일러드 재킷과 플리츠 스커트를 입게 된 것이다.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국민적인 실용의상이 권장되었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바지와 점프 수트 등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트랜치 코트에서부터 유행된 방한용 코트가 인기가 있었다.

이같은 변화는 여성 지위 향상이나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차 대전 기간 중에도 여성들은 군복의 영향을 받은 테일러드 수트, 작업복 등을 입게 되면서 1차 대전에 이어 두번째로 밀리터리룩을 착용하게 되었다. 물자 부족을 겪으면서 실용적 의상이 등장하고, 의복 디자인의 규제를 하게 되었다. 어깨는 각지고 허리에 벨트를 매었으며,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 바로 밑으로 짧게하여 옷감의 낭비를 줄이고 활동적이게 하였다. 프랑스 군인의 모자였던 베레모는 1차 대전 기간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60년대 저항 세력의 반전운동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군복을 저항적 의미로 착용하기 시작했으나, 젊은이들에 의해 군복, 군대 기장 등이 장식된 밀리터리룩이 유행하였다.

90년대에는 네오 히피룩에서 시작된 위장복 무늬 군복 패션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여 '96년의 하이 패션 트렌드에 군복 스타일, 위장복 스타일 등

의 밀리터리룩이 등장하여 세계적인 패션 테마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밀리터리룩의 조형성 및 내적 의미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밀리터리룩의 조형성 및 내적 의미

패션 시기	조형성(아이템 및 디테일)	내적 의미(상징성)
1차 세계대전 기간의 밀리터리룩	테일러드룩, 발목까지 짧아진 스커트, 실용적 국민 의상, 작업복 바지, 올인원, 베레모, 트랜치 코우트	물자절약, 여성의 근로 참여, 실용성, 남성복 스타일 도입, 여성지위향상
2차 세계대전 기간의 밀리터리룩	테일러드룩, 무릎 밑까지 짧아진 스커트, 실용적 의상, 보일러 수츠(올인원), 베레모	
70년대 밀리터리룩	군복착용, 군복 스타일, 해군복지, US ARMY 로고,	反戰운동
90년대 밀리터리룩	군용바지, 위장복무늬, 금색단추, 벨트, 아웃 포켓	복고풍, 패션 주제

IV. 결 론

밀리터리룩은 디자인의 이미지와 스타일에서 기능성 높은 군복을 모방하거나 재해석한 것으로 세계적인 정세와 유행의 흐름에 따라 패션의 주제로 등장하곤 한다.

1차 대전을 효시로 1,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물자 부족과 여성의 근로 참여로 인해, 여성복의 패션에 밀리터리룩이 등장하여 군복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기능적인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 짧아진 스커트, 작업용 바지 착용, 방한 코트, 실용적 국민 의상이 권장 되었다.

70년대에는 저항운동으로 인해 저항적 의미에서 군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복, 군용모자, 군대 마크 등이 새겨진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 네오 히피룩의 복고와 함께, 걸프전과 같은 국지전이 시작되면서 군복 모두드는 다시 유행의 주제가 되어 패션디자이너의 하이 패션을 비롯하여 거리 모우드에 이르기까지 밀리터리룩의 선물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996년의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에서 밀

리터리룩은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채택한 패션의 테마가 된다.

밀리터리룩의 몇가지 특징은 카키색 혹은 위징무늬색, 어깨견장, 뚜껑달린 커다란 아웃 포켓, 금장식 단추, 군대식 벨트 등이다. 밀리터리룩이 주는 느낌은 우선 딱딱하고 진중해 보이고, 단정하며 반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1,2차 대전 기간의 밀리터리룩은 넓은 어깨의 재킷을 보여주었으나, 70년대 이후 90년대에는 좁고 가는 느낌의 모던한 밀리터리룩이 등장하였다. 1,2차 대전 기간에는 물자부족과 여성들의 근로 참여와, 국가 권장사항으로 밀리터리룩을 착용하였으나, 70년대에는 反戰운동의 저항적 성격으로 착용하였다. 90년대에는 스트리트 패션으로 시작하여 하이 패션에 이르기까지 內的인 사상이나 상징성은 약화되고,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밀리터리룩의 복고 현상으로 유행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디자이너 역사를 바꾼다.” 조선일보, 1996, 3, 8.
- 2) Lynn Schnurnberger, *Let there be Clothes: 40000 Years of Fashion*, N.Y.: Workman, 1991, p. 360.
- 3) Jane Malvau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Viking, 1988, p. 33.
- 4) Ibid., p. 41.
- 5) David Bond,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Middlesex: Guinness Superlative, 1981, p. 38.
- 6)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atsford Ltd., 1993, pp. 81-82.
- 7) David Bond, op. cit., p. 38.
- 8) Diana de Marly,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1850-1950*, London: Batsford Ltd., 1986, p. 144.
- 9) Shirley Miles O'Donnol, *American Costume 1915-1970*, Bloomington: Indiana Uni. Press, 1989, p. 13.
- 10) Penelope Byrde, *A Visual History of Costume: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Batsford Ltd., 1987, p. 44.
- 11) Georgina Howell, *In Vogue 75 Years of Style*, London: Conde Nast Books, 1991, p. 14.
- 12) Shirley M. O'Donnol, op. cit., p.5.
- 13) Jane Malvaugh, op.cit., p. 45.
- 14)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1986, p. 230.
- 15) Jane Mulvagh, op. cit., p. 47.
- 16) Shirley M. O'Donnol, op. cit., p. 114.
- 17) Ibid., pp. 123-124.
- 18) Lynn Schnurnberger, op. cit., p. 360.
- 19) Shirley M. O'Donnol, op. cit., p. 114.
- 20) Jane Malyagh, op. cit., p. 172.
- 21) Juliet Ash & Elizabeth Wilson ed. by, *Chic Thrills: A Fashion Reader*, Berkeley: Uni. of California Press, 1992, p. 136.
- 22) David bond, op. cit., pp. 113, 141, 145.
- 23) Amy de la Haye, *Fashion Source Book*, London: Wellfleet Press, 1988, P. 82
- 24) Jane Mulvagh, op. cit., p. 166.
- 25) Caroline Rennolds Milbank, *New York Fashion*, N. Y.: Harry N. Abram Inc., Pub., 1989, pp. 133-134.
- 26) Jane Mulvagh, op. cit., p. 169.
- 27) David Bond, op. cit., p. 112.
- 28) Phyllis Tortora,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N.Y.: Fairchild, 1989, p. 302.
- 29) Lynne Schnurnberger, op. cit., p. 360.
- 30) David Bond, op. cit., p. 110.
- 31) David Bond, op. cit., p. 114.
- 32) David Bond, op. cit., p. 108.
- 33) Elizabeth Ewing, op. cit., pp. 143, 145, 146, 148.
- 34)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경춘사, 1986, p. 17.
- 35)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BSP Professional Books, 1989, pp. 296-297.
- 36) David Bond, op. cit., p. 203.
- 37) *VOGUE BRITISH*, Vol. 162, 1996, August, pp. 73, 82.
- 38) *VOGUE KOREA*, Vol. 1, 1996, 8, p. 99.
- 39) *VOGUE KOREA*, Vol. 2, 1996, 9, pp.256-263, 276-281.
- 40) “군복 패션 다양해 진다”, 조선일보, 1996, 6, 13.
- 41) “올 가을엔 밀리터리룩”, 동아일보, 1996, 8, 21.
- 42) 국제섬유신문, 1996, 6, 24일자
- 43) *VOGUE KOREA*, Vol. 1, 1996, 8, p. 99.